해방전후「격동기 歷史의현장」

독립지사 古宅 사라져간다

무관심속 放置 마구 헐려

해방전후 애국지사들의 발자취와 혼이 서린 고택들이 제대로 보전되지 못하고있거나 자칫 헐려 없어질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역사적 의미가 깊은 이같은 집들이 최근 멸실위기에 처한 것은 현재 이들 가옥을 소유한 집주인들이 낡은건물을 헐어내고 새로 집을 지으려 하거나 달국의 무관심속에서 방치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鍾路구桂동140의 8 夢陽 呂運亨의 고택은 지난89년7월 옛것에 소방도로가 뚫리면서 대지60평 건평40평가운데 사랑채 일부인 5평정도만 남은채 헐렸다. 이 집의 사랑채는 지난47년3월17일 새벽 폭탄테러로 무너져내렸던 곳으로 이때 夢陽은 마침 부재중이어서 무사했다.

현재 남아있는 사랑채 일부는 지붕만 남아있는 상태로 벽을 새로 쌓아 칼국수집이 들어서있다. 89년 당시 헐린 집의 기둥 서까래 기와등은 夢陽 呂運亨 기념사업회(회장呂世鉉)가 夢陽의 고향인 京畿도楊平에 보관중이나 마땅한 이전장소를 찾지 못해 夢陽의 고택을 재건축해 보존하겠다는 계획은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古下 宋鎭禹가 45년12월 30일 새벽 6시10분경 흉탄에 쓰러졌던 鍾路구苑西동(당시 苑洞)74 古下고택은 현재 고려병원이 본관외래 건물로 사용하고 있다. 서양식 2층건물인 경교장은 부지면적 1천5백84평에 연건평은 2백64평(1층 1백17평)으로 38년7월에 완공됐다. 현재까지도 건물 외형은 건축당시와 똑같이 보존되고 있으나 건물내부는 병원시설에 맞도록 개조됐다.

白凡 金九가 45년11월 귀국해 49년6월26일 安두熙의 흉탄으로 서거할때까지 3년7개월간 기거했던 京橋莊(鍾路구巫동108)은 현재 고려병원 건물로 사용되고 있다. 이곳은 주민들에 따르면 雪山의 고택마루에는 아직 흉탄자국이 그대로 남아있었다는 것.

현재 서울시가 해방전후 역사적인물의 고택을 서울시기념물로 정해 보존하고 있는 곳은 우남李承晚전 대통령이 기거했던 梨花莊(鍾路구梨花동1의2)과 萬海 韓龍雲의 尋牛莊(城北구城北동222의1)등 두 곳뿐.

이같이 역사적 인물의 고택이 기념물로 지정된 것이 두채에 불과한데 비해 건축물로서 가치를 인정해 민속자료나 문화재자료로 지정된 한옥은 尹潽善전대통령의 집(鍾路구安國동8의1)과 현재 경인미술관으로 사용되고 있는 朴泳孝의 집(鍾路구寬勳동30의1), 80년12월 국민대구내로 이전 보존된 한말의 漢城判尹 韓圭高의 집등 22채에 이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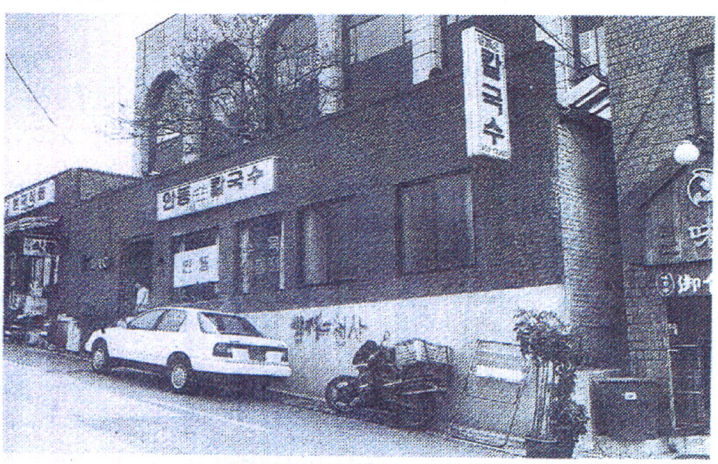
전문가들은 건축물로서 보존가치가 있는 한옥을 민속자료나 문화재자료로 지정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역사적 의미를 갖고있는 집들을 서울定都6백년기념사업의 하나로 채택, 보존해나가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역사적 의미가 있는 집으로서는 3·1독립선언서를 인쇄했던 洪鍾波의 집, 西江의 대원군별장등과 기타유명인사들의 집들을 검토해 볼수있다. 현재로서는 이들 가옥에 대한 자료가 정리된 것이 없는 상태다.

병지대 金鴻植교수(건축학과·고건축전공)는 『표랑스 파리의 경우 문화재 지정 자료만도 3만건에 이르고있다』며 『과거와 달리 최근 서울에서 보존할 가치가 있는 집들이 막잡이로 헐리고 있으므로 이에대한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金교수는 원형 그대로의 보존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그것이 여의치않다면 서울근교에 부지를 마련해 이전 보존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수 있다고 밝혔다.

〈成河雲〉

古下 집 古下 宋鎭禹가 45년12월30일 흉탄을 맞고 서거한 현장인 서울鍾路구苑西동(당시苑동)74 古下의 고택은 현재의 집주인이 낡은 가옥을 헐고 이곳에 3층빌라를 짓기위해 설계를 마친 상태이다.



夢陽 집터 서울鍾路구桂동140의 8 夢陽 呂運亨의 고택은 지난 89년 7월 소방도로개설로 헐리고 남은 사랑채 일부가 칼국수집으로 쓰이고 있다. 〈金徹翰〉

夢陽집 商街로…古下집 빌라건축계획

白凡기거 京橋莊 내부개조 병원으로

梨花莊 尋牛莊 2곳만 서울市기념물로 지정

해방전후「격동기 歷史의현장」

독립지사 古宅 사라져간다

무관심속 放置 마구 헐려

해방전후 애국지사들의 발자취와 혼이 서린 고택들이 제대로 보전되지 못하고있거나 자칫 헐려 없어질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역사적 의미가 짙은 이같은 집들이 최근 멸실위기에 처한 것은 현재 이들 가옥을 소유한 집주인들이 낡은건물을 헐어내고 새로 집을 지으려 하거나 당국의 무관심속에서 방치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鍾路구桂동140의 8 夢陽 呂運亨의 고택은 지난89년7월 이곳에 소방도로가 뚫리면서 대지60평 건평40평가운데 사랑채 일부인 5평정도만 남은채 헐렸다. 이 집의 사랑채는 지난47년3월17일 새벽 폭탄테러로 무너져내렸던 곳으로 이때 夢陽은 마침 부재중이어서 무사했다.

현재 남아있는 사랑채 일부는 지붕만 남아있는 상태로 벽을 새로 쌓아 칼국수집이 들어서있다. 89년 당시 헐린 집의 기둥 서까래 기와등은 夢陽 呂運亨 기념사업회(회장呂世鉉)가 夢陽의 고향인 京畿도楊平 양수리에 보관중이나 마땅한 이전장소를 찾지 못해 夢陽의 고택을 재건축해 보존하겠다는 계획은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古下 宋鎭禹가 45년12월30일 새벽6시10분경 흉탄에 쓰러졌던 鍾路구苑西동(당시 苑洞)74 古下고택은 현재 집주인이 건물을 헐어내고 그 자리에 3층빌라를 지으려고 설계를 마친 상태다. 이 집주인은 古下가 쓰던 서재가 원형대로 보존되어 있다며 당국이 원한다면 이 서재를 다른곳으로 이전, 보존할수 있도록 건물을 기증하겠다고 밝혔다.

白凡 金九가 45년11월 귀국해 49년6월26일 安斗熙의 흉탄으로 서거할때까지 3년7개월간 기거했던 京橋莊(鍾路구苑동108)은 현재 고려병원이 본관외래건물로 사용하고 있다. 서양식 2층건물인 경교장은 부지면적 1천5백84평에 연건평은 2백64평(1층1백17평)으로 38년7월에 완공됐다. 현재까지도 건물 외형은 건축당시와 똑같이 보존되고 있으나 건물내부는 병원시설에 맞도록 개조됐다.

이밖에 雪山 張德秀의 고택은 이미 사라지고 없다. 雪山이 47년12월2일 저녁7시경 흉탄에 목숨을 잃은 곳인 東大門구祭基2동1149의4 고택은 지난 82년 헐렸고 그 자리에는 미니3층의 양옥이 들어서 있다. 인근 주민들에 따르면 雪山의 고택마루에는 집이 헐릴때까지 알쌀시의 총탄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것.

현재 서울시가 해방전후 역사적인물의 고택을 서울시기념물로 정해 보존하고 있는 곳은 靈[illegible] 李承晚전 대통령이 기거했던 梨花莊(鍾路구梨花동1의2)과 萬海 韓龍雲의 尋牛莊(城北구城北동222의1)등 두 곳뿐.

이같이 역사적 인물의 고택이 기념물로 지정된 것이 두채에 불과한데 비해 건축물도서 가치를 인정해 민속자료나 문화재자료로 지정된 한옥은 尹潽善전대통령의 집(鍾路구安國동8의1)과 현재 경인미술관으로 사용되고 있는 朴泳孝의 집(鍾路구寬勳동30의1), 80년12월 국민대 구내로 이전 보존된 한말의 漢城判尹 韓圭禹의 집등 22채에 이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건축물도서 보존가치가 있는 한옥을 민속자료나 문화재자료로 지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역사적 의미를 갖고있는 집들을 서울定都 6백년기념사업의 하나로 채택, 보존해나가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역사적 의미가 있는 집으로서는 3·1독립선언서를 인쇄했던 洪關波의 집, 西江의 대원군별장등과 기타유명인사들의 집들을 검토해 볼수있으나 현재로서는 이들 가옥에 대한 자료가 정리된 것이 없는 상태다.

명지대 金鴻植교수(건축학과·고건축전공)는 『프랑스 파리의 경우 문화재지정 자료만도 3만건에 이르고있다며 『과거와 달리 최근 서울에서 보존할 가치가 있는 집들이 막 잡이로 헐리고 있으므로 이에대한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金교수는 『원형 그대로의 보존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그것이 여의치않다면 서울 근교에 부지를 마련해 이전 보존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수 있다』고 밝혔다. 〈成河雲〉

古下 집 古下 宋鎭禹가 45년12월30일 흉탄을 맞고 서거한 현장인 서울鍾路구苑西동(당시苑동)74 古下의 고택은 현재의 집주인이 낡은 가옥을 헐고 이곳에 3층빌라를 짓기위해 설계를 마친 상태이다.

夢陽 집터 서울鍾路구桂동140의 8 夢陽 呂運亨의 고택은 지난 89년 7월 소방도로개설로 헐리고 남은 사랑채 일부가 칼국수집으로 쓰이고 있다. 〈金徹翰〉

夢陽집 商街로…古下집 빌라건축계획

白凡기거 京橋莊 내부개조 병원으로

梨花莊 尋牛莊 2곳만 서울市기념물로 지정

公選協「機務司지침」조사촉구

국방부에 未公開 제보8件 제시

공선협은 11일오후 군부재자투표부정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대책위회의를 열고 그동안 공선협에 접수돼 언론에 공개한 22건의 제보와 추가로 접수해 아직 공개치 않은 8건등 모두 30건의 부정의혹제보사항을 국방부에 제공, 1차적으로 군자체의 진상조사를 요구키로 했다.

공선협은 이같은 방침은 지난 9일 李漢彬공동대표 등 공선협관계자 5명이 자유롭고 공정한 진상조사를 요구키 위해 崔世昌국방부장관을 방문한 자리에서 崔장관이 제보내용을 언론에 공개하기전 국방부에 제공해줄 경우 자체조사를 벌여 그 결과를 공선협에 통보해주겠다는 제의를 한데 따른 것이다.

공선협이 국방부의 제의에 따라「잠정적 협력관계」를 유지한다는 조건으로 13일중 국방부에 제공할 예정인 30건의 제보사항중 언론에 미공개된 8건가운데는 선거기간동안 장병들이 접할수 있는 후보자에 관한 정보의 차단과 TV 시청통제를 지시하는 기무사의 문건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을 끌 것으로 보인다.

공선협의 한관계자는 『공선협대책위가 이날 회의에서 국방부에 제공할 기무사의 문건은 공개를 잠정 보류한채 먼저 국방부측에 기무사에 의한 군선거부정의혹의 증거물로 제시, 군자체의 진상조사를 요구키로 결정한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난 9일 공선협대표 5명이 崔장관을 만나 전달한 「국방부장관에게 드리는 공선협의 의견」이라는 문서내용속에 「국군기무사가 이번선거부정의 주범역할을 한것으로 알려졌을뿐아니라 장병들에 대해서도 정보차단, TV뉴스 시청통제, 선거집회 출입금지등의 조치를 취해온것으로 알고있다」고 표현한것은 기무사의 문건에 근거한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선협은 이 의견서에서 『특별히 이번에 관심의 초점이 되고있는 국군기무사에 대해 엄정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었다.

공선협측은 기무사의 문건에 대한 국방부측의 진상조사 결과가 미흡할 경우 이 자료를 언론에 공개할 방침인것으로 알려졌다.

전국연합등 17개단체 보안법철폐본부 결성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등 17개 재야단체회원 3백여명은 11일 오후3시경 동국대에서 「국가보안법철폐를 위한 범국민투쟁본부」결성대회를 갖고 14대 국회개원에 앞서 국가보안법철폐운동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현代상선 前사장 오늘 출두

내일중 令狀청구

검찰, 鄭夢憲씨 週初 소환방침

현대상선의 탈세부정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특수1부는 11일 국세청에서 탈세등혐의로 고발한 宋允材(57)朴世勇전사장(52)으로부터 12일오후 5시까지 검찰청사로 출두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조사를 마친뒤 13일 오후나 14일오전에 鄭夢憲부회장을 소환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宋, 朴 전사장에 대해서는 13일중에, 鄭부회장에 대해서는 14일중에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미 조사를 받은 이 회사 직원들로부터 비자금조성및 보관, 지출은 宋, 朴전사장과 鄭부회장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진술을 받아내 이들의 사법처리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조사를 받은 이 회사 직원들은 검찰에서 비자금가운데 액수가 큰 것은 「B」자금이라 부르며 鄭부회장의 지시로 지출했고 액수가 적은 것은 「S」자금으로 분류해 宋, 朴전사장의 지시로 지출했다고 진술했다는 것이다.

시동생이 형수殺害 사업자금마련 범행

【서울=본사】 서울경찰청은 11일 지난90년9월에 발생한 仁川시富平1동549 盧숙자씨(당시46세)살해사건의 주범으로 盧씨의 시동생 洪덕열씨(46·金山시東萊구蓮山9동 주공아파트 123동)와 잠들아비 朴영철씨(29·金山시東萊구巨堤4동815)등 3명을 검거, 신병을 인천경찰청에 인계했다.

경찰에 따르면 洪씨는 사업자금이 부족하자 형수인 盧씨에게 사업자금을 지원해줄 것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범행을 결심, 지난 90년9월28일 오전 9시20분께 盧씨가 외출한 틈을 타 미리 복제한 출입문 열쇠를 이용해 盧씨집에 함께 침입한 후 기다리고 있다가 이날 저녁 귀가한 盧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다이아몬드 반지 등을 털어 달아난 혐의다.

수입통지대금 數億 江東등기소서 착복

심부름센터 주장

서울강동등기소가 지난 3년여동안 건물 토지등의 등기부등본을 발급하는 과정에서 수입증지대금의 일부를 가로채 수억원을 착복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물의를 빚고있다.

이 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을 고정적으로 발급받는 심부름센터들에 따르면, 이 등기소 등본계직원들이 이 등기소 관내 7개 심부름센터에서 신청하는 하루 1천여통의 등본중 절반가량을 수입증지대금만 챙긴뒤 수입증지를 붙이지않고 발급해 하루 30여만원씩 3년여동안 수억원의 수입증지대금을 착복해왔다는 것이다.

휴지통

▼…서울 성북경찰서는 11일 횡단보도에서 중학생을 친 뒤 끝고가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음을 시인하는 내용의 각서를 쓰게한뒤 풀어준 金芳鉉씨(25·택시회사정비공·서울城北구貞陵1동130)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경찰에 따르면 金씨등은 지난 10일밤11시 경 서울T운수소속 서울4파1367 택시를 몰고가다 서울 城北구 普門동1가 보문로터리부근 횡단보도에서 심부름을 다녀오던 金건영군(14·서울Y중3)을 치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뒤 金군을 차에 태워 1㎞떨어진 서울城北구敦岩동 A카페로 데려가 1시간동안 협박, 金군으로부터 『사고의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는 내용의 자인서를 받아냈다는 것…▼…金군의 신고로 A카페에서 술을 마시다 경찰에 붙잡힌 이들은 『金군의 부상정도가 워낙 경미한데다 그냥 보내면 후유증보상등 뒤탈이 생길것같아 억지로 진술서를 받아냈다』며 선처를 호소…。

여성이 선택한 푸제아 향
미스 괘남렬 진
대평양화학

여성동아 4월호 판매중
특종 인물 발굴! 국내 최초 사진공개!
'일본천황' 암살하려던 한국청년사랑하다 함께 투옥돼 옥중자살한 가네코 후미코의 '25년' 들꽃같은 인생드라마
남편은 '돈 벌어다 주는 기계' 아내는 '살림만하는 여자'인가
노망난 '금진도 할머니'의 눈물을 아시나요

약효로 보답하는 대웅제약
두통 — 두통이 시원하게 사라지는 대웅제약두통약—쿠울펜S!
반드시 의사, 약사에게 상의하고 "사용상 주의사항 및 부작용"을 잘 읽은 다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두통엔 쿠울펜이 왜 좋은가?
첫째, 효과 때문입니다. 쿠울펜 S는 물(37℃)에서 약50초 이내에 붕해되어 잘 흡수됩니다.
Disintegration test result (K·P)
둘째, 간해독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쿠울펜 S에는 진통성분 이외에 간 해독성분이 들어있어, 더욱 좋습니다.
세째, 非습관성, 非마약성, 非피린계 이기 때문입니다.
네째, 쿠울펜은 카페인이 들어있지 않으므로 수면장애가 없어 오후에 사용하기 좋습니다.
효과좋은 두통약 쿠울펜S정
표준소매가격 : 100정/20,000원
●소련으로 수출된 두통약 쿠울펜— 이제 본격적으로 국내에 선보입니다.